

전남도 공설시장 87곳 임대료 감면 나서

'착한 임대료 운동' 상가변영회 대상 참여 유도 농어민 공익수당 1459억원 상반기 전액 지급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87개소 점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또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1459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 곡성군은 공설시장(3개소) 점포 임대료 2개월간 50% 감면, 장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 등을 각각 결정했다. 나머지 시·군들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6일 발표한 '대도민 담화'에서 도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뒤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 A빌딩 건물주 B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30만원을 일괄 인하했다. 이같은 소식은 임차인 중 한 명인 C씨가 50만원인 월세를 20만원만 내게 됐으며 시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해남군 소재 건물주 D씨 역시 "3월분 월세 60만원을 인하해 준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알려지나 소문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수시 소재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도 94개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간 20% 인하했으며, (주)여수중앙시장은

45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했다.

전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변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인 4월말과 5월말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될 전남도 지역화폐는 1459억원으로, 올해 발행할 지역화폐 2500억원의 58%에 해당된 규모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발행된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지역별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예정 기일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흥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 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총선 라운지

박주선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박주선 민생당 의원이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쪼개지고 흐트러진 호남 정치를 끈고 힘 있게 세워, 우리 지역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고 대변하여 광주 정신 회복과 호남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



박주선

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치를 통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이 주신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겠다"고

/오광록 기자 kroh@

"3·1만세운동 정신과 5월 광주정신 지켜낼 것"

이용빈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3·1 만세운동의 101주년"이라며 "3·1만세운동 정신과 5월 광주정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려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동학 농민운동이 그랬고, 3·1



이용빈

운동이 그랬으며, 5월의 광주가 그러했고, 촛불 시민혁명이 그랬다"고 말했다.

또 "101년 전 오늘, 3월의 대한민국과, 40년 전 5월 광주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목포자동차검사소 빠른 시일내 이전 요구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목포)은 1일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목포자동차검사소 이전을 위해 한국교통공단으로부터 이전 관련 현황 및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교통공단 이사장에게 빠른 시일내에 대체 부지를 찾아 목포자동차검사소를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목포자동차검사소 현부지는 연약 지반인데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체 부지를



윤소하

찾지 못해, 이전 사업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공단 측으로부터 필요한 부지가 2000평 내외이며, 대체 부지를 찾아 빠르게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한 뒤 "자동차검사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진척 상황을 확인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찾아가는 코로나 예방 서비스 실시해야"

서갑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갑원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지역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 진정국면까지 비대면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 예방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안' 영상을 통해 "마스크 구매 등을 위해 시민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오히려 감염에 노출될



서갑원

가능성이 크다"며 "돌격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민센터,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마스크 배부처를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 및 가스요금 감면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판' 호응

순천, 여수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남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코로나 19 전남 상황판'이 호응을 얻고 있다. 방역당국이 공식 확인한 확진자 동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공간이기 때문이다.



KTX 방역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일 오후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KTX 열차 내에서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반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19 전남 상황판'은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 19 관련 전남지역의 모든 정보가 이 곳에 망라돼 있다.

확진자 현황, 전남도 검사 현황,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동선 등이 하루 1회 이상 업데이트돼 제공된다. 도내 신천지 시설 65곳 주소, 일일 상황보고, 선별진료소 위치도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 안내는 환자 별 인적사항(성별, 나이), 감염 경로, 확진일, 접촉자, 격리시설 등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증상 발현 전부터 격리되기까지의 동선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전남 2번째 환자의 경우 2월 26일 오전 9시 50분경 순천 연향동 한빛산부인과 방문(도보 이용)→10시 10분경 순천시 연향동 하나로약국 방문(도보 이용)→10시 40분경 순천시 연향동 에피드 화장품 가게 방문(도보 이용)→10시 50분경 귀가(택시 이용) 등 시간·장소·이동 수단 등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정보가 제공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도내 중기제품 우선 구매 86% 달성

지난해 구매액 3조6705억

전남도가 올해 4조3000억원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제품 구매에 쓰기로 했다.

전남도는 1일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에 따라 지난해 구매액 3조 6705억원과 올해 구매목표액 4조3426억원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매액 3조6705억원은 중소기업 제품 총구매액 4조2679억원의 86%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당초 구매목표액 3조2229억원보다 14% 초과 달성한 것

로 확인됐다.

이는 47개 참여 공공기관이 지역제한입찰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내 제품 우선구매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올해 구매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4조 3426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공공구매상담회, 우수상품전시회 등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남도교육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NH농협·광주은행 등 19개 기관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에 새롭게 동참해

참여기관이 66개로 확대됐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그동안 지역 공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제품 판매 확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우선구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내 중소기업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출연기관 등 47개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상·하반기에 걸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